

## 징후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

- 역사의 종언 이후 역사 드라마 연구에 대한 성찰과 전망

권두현\*

### <차례>

1. 문학 연구와 문화연구 사이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
2. 현존하는 드라마와 부재하는 역사 :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의 어떤 징후
3. 선언의 수사학 대신 보편의 언어로 발화하기 위하여

### <국문초록>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라는 연구서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가능성은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에 있어 ‘텔레비전’과 ‘드라마’가 아닌 ‘역사’라는 인문학적 테마가 등장함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가 텔레비전 드라마임을 확인하는 계기의 폐쇄회로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역사 드라마에 대한 범주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와 같은 범주화의 시도는 개별 텍스트를 바라보는 연구자 개인의 미시적 시각을 넘어선 역사 드라마라는 장르를 아우르는 거시적 시각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서 주의 깊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이 책이 나름의 풍요로운 학술적 성과와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의 그 어떤 한계를 노출시킴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을 적극적으로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번번이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로부터 출발하여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론으로 재귀하는 선언의 수사학이 아니라 보편의 언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발화될 수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1. 문학 연구와 문화연구 사이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

텔레비전은 편성이라는 시간 테크놀로지를 통해 일상적 리듬을 시청자의 신체에 각인시킴으로써 비로소 시청자를 원격 제어(remote control)하기 시작했다. 출근을 전후로 한 시간의 아침 드라마, 저녁 식사를 마친 뒤 9시 뉴스를 기다리는 시간의 일일 드라마,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기 전의 미니시리즈 등 텔레비전이 창출한 일상적 리듬의 주요한 마디에는 어김없이 각종 텔레비전 드라마가 위치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텔레비전을 시간성의 미디어로 만들어내는 주요한 장치(dispositif)였던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은 극장을 가정 내부로 들여와 이른바 ‘안방극장’이라는 제도를 생산해낸 공간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텔레비전 드라마는 스위트홈의 표상으로서 인테리어(혹은 인터페이스)의 핵심으로 군림했던 텔레비전으로부터 빠져나와 PC와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둘러싼 담론의 시공간을 드라마틱하게 활성화시켰다.

오늘날 한국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만큼 풍요로운 담론장을 갖춘 장르도 없을 것이다. 포털 사이트의 기사 지분을 양분하고 있는 연예와 스포츠 중에서도 텔레비전 드라마와 관련된 기사는 연예 카테고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방송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독후감과 예고편에 해당하는 기사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린다. 이와 같은 열렬한 반응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흥행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흥행은 상업 광고로 이어지고, 상업 광고는 다시 텔레비전 드라마의 앞뒤에 따라 붙으며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는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텍스트와 텔레비전 드라마의 파라텍스트로 이루어진 콘텍스트 그 자체가 된다. 이 콘텍스트는 항상 징후적이다. 오늘날 신드롬(syndrome)은 병원균이 아니라 대

\* 동국대학교 강사

부분 텔레비전 드라마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드라마가 학술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는 여전히 협소하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과연 진지한 학술적 검토의 대상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농도 짙은 의혹을 거두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은 현재까지도 부단히 이어지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미디어 연구와 문학 연구가 접점을 이루며 전개되었다. 미디어 연구는 문화연구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문화연구의 태생적 토양인 마르크시즘의 퇴보 위에서 탄생하였다. 문화연구는 마르크시즘이 지니고 있는 사회의 전체성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마르크시즘을 수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를 확대해석하기에 그 전체 과정에서 대중매체를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그 작용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표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학술장에서 문화연구는 온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 종언을 선고 받은 문학의 대안으로서 문화와 문화연구가 연호되는 상황 속에서도 문화연구는 오히려 철저하게 위축되었고 심지어 소외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의 미디어 연구는 문화연구라는 기원과 분리된 채 풍속사 혹은 사회문화사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나아갔고, 미디어는 풍속사 및 사회문화사를 구성하는 자료로 취급되었다. 초기 방송극부터 최근의 미니시리즈에 이르는 텔레비전 드라마 역시 풍속사와 사회문화사 위에 배치되었다.

한편, 미디어 연구가 아닌 텍스트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연구대상의 미학적 가치를 검증하고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형편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철저히 검증하는 작업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연구의 근본이다. 하지만 연구의 근본이 연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이것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진다. 문학 연구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많은 경유지를 거쳐

매번 새로운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학 연구의 장에서 문학은, 문화는 물론, 정치, 사회, 역사 등과 같은 인문의 단위와 폭넓게 접촉하는 가운데 돌출하고 귀환하지만,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의 장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벗어날 수 없는 전제이자 반드시 이르러야 할 결론이며, 전제와 결론 사이의 유일한 매개자로서 존재한다. 대개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개별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텔레비전 드라마의 텔레비전 드라마적 자질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데로 귀결되며, 바로 그 지점에서 호흡을 거두어버린다. 이와 같은 노력이 거듭되는 가운데 텍스트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미학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전략은 문학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문학 연구 방법론을 통해 텍스트를 다루면서도 문학과는 결코 같지 않은 텔레비전 드라마 고유의 미학을 드러내는 데 열을 올린다. 문학 연구 방법론을 취하고 있지만 문학은 아니고, 극마당에 포함되지만 연극 및 영화와도 다르다는 것이다. 문학과 극마당을 통해 배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이처럼 배타적이기도 하다. 이는 과연 연구의 전문화인가, 아니면 게토화인가. 오늘날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전체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결론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로 수렴되는 폐쇄회로 내부의 무한한 재귀의 상황이 유희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다시 한 번 원점에 섰다. 그렇다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동안 ‘무엇’을 볼 것인가로 손쉽게 치환되어 왔다. 비로소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방법에 대한 진취적 고민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문제의 핵심에 ‘역사’라는 또 하나의 수식어를 품

은 연구서 『텔레비전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가 등장했다. ‘역사’라는 테마를 전경화한 이 기획은 마치 제3의 배우를 무대 위에 등장시킨 소포클레스를 떠올리게 하는데, ‘텔레비전’과 ‘드라마’라는 두 가지 범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면적 관계 외에도 역사와 텔레비전, 역사와 드라마라는 입체적 관계를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도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또한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늠하게 하는 자리에 바로 이 책이 놓여있다.

## 2. 현존하는 드라마와 부재하는 역사 :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의 어떤 징후

『텔레비전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 드라마는 총 13편으로서 <태왕사신기>부터 <전우>에 이른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망라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논의의 초점은 전유된 역사가 아니라 전유의 주체로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맞춰져 있다. 총 13편의 개별 텍스트를 분석한 13편의 글들이 ‘정치와 권력’, ‘혁명과 스캔들’, ‘일상과 판타지’라는 세 가지 테마로 묶여 있고, 역사 드라마의 장르론에 해당하는 에필로그가 배치되어 있다.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여기에 실린 13편의 글들은 모두 다 개별 작품론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작가를 누구로 상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지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을 터, 작가론을 비롯한 그 밖의 시도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 이 책에 수록되지 않은 글 가운데서도 개별 작품론이 아닌 연구를 발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은 몇 가지 눈에 띄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눈

에 띄는 가능성은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에 있어 ‘텔레비전’과 ‘드라마’가 아닌 ‘역사’라는 인문학적 테마가 등장함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가 텔레비전 드라마임을 확인하는 재귀의 폐쇄회로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니 이 책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띄어쓰기 없이 ‘텔레비전드라마’로 칭하고 있다. (표지를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텔레비전과 드라마라는 태생적 기원 그 이상을 사유하겠다는 필자들의 선언으로 읽힌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띄어쓰기 한 칸을 지우고 ‘텔레비전드라마’로 표기하기까지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한 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묘한 명칭의 변화는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텔레비전과 드라마 사이의 긴장을 살피는 그간의 작업 대신 이 책이 선택한 것은 한 몸이 된 ‘텔레비전드라마’와 ‘역사’ 사이의 긴장을 살피려는 시도이다. ‘역사’라는 테마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비롯한 모든 서사 양식의 영원한 화두로서 후속 연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접속력이 좋은 주제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범주 구분의 타당성을 일단 논외로 하고, 역사 드라마-필자들은 여기에서도 띄어쓰기 없이 ‘역사드라마’라고 적고 있다.에 대한 범주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데서 발견된다. 그 시도는 ‘정치와 권력’, ‘혁명과 스캔들’, ‘일상과 판타지’라는 삼분화된 체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 드라마에 대한 몇몇 논의들은 개별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 텍스트의 특수성을 텔레비전 역사 드라마의 보편성으로 환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나름의 범주화를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가 역사를 전유하는 방식, 이를 아마도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터, 이 세계관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주화의 시도는 개별 텍스트를 바라보는 연구자 개인의 미시적 시각을 넘어선 역사 드라마라는 장르를 아우르는 거시적 시각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서 주의 깊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은 이 책이 나름의 풍요

로운 학술적 성과와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의 그 어떤 한계를 노출 시킴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을 적극적으로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라는 제목과는 달리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역사를 전유하는 방식보다는, 거꾸로, 역사 드라마가 텔레비전 드라마의 미적 자질들을 어떻게 간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일진대, 현재의 어떤 상황이 역사 드라마를 소환했는지, 다시 말해 필자들이 공유한 애초의 문제의식이었던 ‘2000년대적 징후’와 ‘징후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이 책에서 그다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과거를 재현하는 텍스트가, 특히 가공의 창작물이, 그 과거를 소환하고자 하는 현재의 욕망 구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이 과거의 역사가 재현되는 현재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산>과 <추노>,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가 조선시대를 통해 21세기 한국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고, <성균관 스캔들>이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등으로 언표화되는 20대의 무기력함에 대한 혁명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각의 역사 드라마가 비추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그 어떤 폭넓은 해석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 드라마들이 2000년대 이후의 텍스트이고, 이와 같은 텍스트들을 의식적으로 선별해낸 것이라면 ‘역사의 종언’이 선고된 2000년대 이후의 (탈)역사적 상황, 즉 포스트히스토리 시대의 역사 드라마가 갖는 의미가 논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후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로서 ‘역사 드라마’에 주목한 이 기획은 ‘징후’를 불러일으킨 현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끝내 유보하는 듯하다.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에 있어 역사가 차지한 자리는 텔레비전 드라마 특유의 동시대성을 빠져나간 자리였던 셈이다.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를 전유하다』라는 기획은 역사를 테마로 다루

고 있지만 역사는 사실상 주제가 아니라 소재에 머물고 있을 뿐, 어디까지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해석학적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정치와 권력’, ‘혁명과 스캔들’, ‘일상과 판타지’는 그 어떤 해석학적 전략의 단초가 되는 키워드들이다. 2000년대 이후의 역사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텍스트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단일한 경향으로 포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범주화는 서로 다른 텍스트의 결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당연한 시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각의 범주 내에 배치된 텍스트들이 과연 해당 키워드를 적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텍스트인지, 즉 텍스트와 키워드의 정합성은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 예컨대, <태왕사신기>와 <별순검>, 그리고 <동양극장>과 <전우>를 꿰어주는 키워드가 왜 ‘일상과 판타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일상과 판타지’라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텍스트가 선정되었다기보다도, <태왕사신기>부터 <전우>까지의 텍스트를 성글게나마 한데 묶어내기 위해 사후적으로 그 범주가 고안된 것은 아닌가. <전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상 혹은 판타지는 무엇인가. 혹은 <전우>를 관통하는 일상 혹은 판타지는 무엇인가. <전우>라는 텍스트 자체부터가 이미 일상 혹은 판타지에 대한 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필자 역시도 <전우>에 대해 일상 혹은 판타지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접근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범주화의 시도는 개별 텍스트 및 텍스트 연구의 의도를 상당 부분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와 권력’, ‘혁명과 스캔들’, ‘일상과 판타지’라는 세 가지 테마는 텍스트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작품들을 그 소재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역사를 소재로서 취급하는 것은 비단 이 책의 한계가 아니라 대중예술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고유의 방식으로서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지도 모른다. 특히나 과거의 역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

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소재로 삼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역사 드라마의 특징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 역사의 소재화는 딱히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확고한 전제에 해당할 뿐, 이에 대한 그 어떤 친절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역사는 역사 드라마의 소재이고, 역사 드라마는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보편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소재일 뿐이다. 개별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 해당하는 많은 글들에서 개별 텍스트의 특징은 역사 드라마의 특징으로, 역사 드라마의 특징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징으로 도약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분명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역사소설 및 역사극 연구 등 역사를 소재로 한 텍스트 연구로서의 특징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역사소설 및 역사극과의 차이, 더 나아가 역사 드라마가 아닌 다른 텔레비전 드라마와의 차이를 통해 역사 드라마 고유의 특징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었을 텐데, 역사 드라마의 특징은 곧바로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징으로 환원되어버리고 만다. 각각의 글에서 ‘역사 드라마’라는 표현보다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단행본에 함께 실려 있는 각각의 글들 사이에서 대화 혹은 상호작용성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개인이 아니라 스터디팀의 연구 성과라면 보다 거시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역사 드라마의 발생론적 기원과 진화론적 과정 등을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해주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00년대 이후는 이와 같은 면밀한 분석 이후에야 만날 수 있는 지점이었을 테니 말이다. 개별 텍스트 분석만으로 과연 역사 드라마라는 거대한 테마를 온전하게 연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정치와 권력’, ‘혁명과 스캔들’, ‘일상과 판타지’라는 범주를 고안해내기까지의 토론 과정에 대한 궁금증은 에필로그를 통해서도 딱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소 의외인 것이 에필로그는 이 책이 취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주와는 전혀 무관하게 ‘민족의식 고양과 사회적

의제 설정’, ‘정치의식 각성과 이상적인 지도자 모색’, ‘혁명의식 고취와 현실 정치의 폐해 폭로’, ‘열정적 감성 고조와 개인적 이상의 성취’, ‘복고적 정서 자극과 시대정신의 훼손’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를 새롭게 제안한다. 새롭게 제안하는 다섯 가지 범주 앞에서 앞선 범주들은 순식간에 무의미해진다. ‘민족의식 고양과 사회적 의제 설정’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와 권력’이라는 범주 내에 배치되었던 <주몽>과 ‘일상과 판타지’라는 범주 내에 배치되었던 <태왕사신기>와 <전우>가 한데 묶인다. ‘혁명과 스캔들’로 함께 묶여있던 <성균관 스캔들>과 <경성 스캔들>은 각각 ‘혁명의식 고취와 현실 정치의 폐해 폭로’, 그리고 ‘열정적 감성 고조와 개인적 이상의 성취’라는 범주로 구별된다. 다소 자의적이며 빈틈이 많은 범주화는 애초부터 ‘징후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빠져나갈 여지를 너무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범주화 이후의 작업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은 남는다.

개별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텍스트가 가로놓인 맥락, 즉 2000년대 이후의 사회문화 연구를 통해 역사 드라마 연구는 문학 연구와 문화연구 사이의 매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학은 언제나 정치와 연동되기 마련이고, 하물며 그것이 역사 드라마의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드라마의 미학을 살피는 이 책은 정치적인 것에 대해 실눈을 뜬 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가 문학 연구와 문화연구 사이의 매개자가 되어 미학의 총체성을 비로소 온전하게 복원해줄 수는 없을까. 이 책은 미완의 기획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은 지점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학제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역사 드라마 연구에 있어 중요한 과제일 것이며, 방법론적 난점들을 발견해야 비로소 연구는 두터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모로 아쉽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애초부터 협소한 시야는 분명히 지적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징후일 테니 말이다.

### 3. 선언의 수사학 대신 보편의 언어로 발화하기 위하여

태생적으로 문자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극예술로 인해 극예술 연구자들은 문학 연구자의 마이너리티이자 서벌턴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져야 했는지도 모른다. 극예술 연구자들은 시나 소설 연구와도 다르고 연극 및 영화 연구와도 다른 제3의 영토를 개척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다. 극예술 연구자들의 거처인 문자 문화와 시각 문화의 접경지대는 나름의 통행증이 필요한 접근금지구역이 되었고, 그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어느덧 게토가 되어버렸다.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이러한 게토의 가장 깊은 슬럼에서 태어났다. 극예술 연구라는 게토에서 대중을 향해 직접적으로 발화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인 것이다. 하지만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의 외침은 어디까지나 게토를 건너지 않으면 수신되지 않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연구한다는 것은 대중을 곁에 두고 이루어지는 작업이면서도 철저히 외롭다.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의 외로움은 때때로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자부심은 때때로 소통의 단절을 낳기도 한다.

소통의 단절은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외부 없는 완전한 세계 내에서 자족하는 방식을 상상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 자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세계 내에서 소통 가능한 나름의 법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장르론일 것이다. 근대 문학이 시, 소설, 희곡의 삼분법 체계 위에 성립되었고, 이광수가 ‘문학이란 하오’를 통해 근대 문학의 체계를 조선에 도입하였듯이,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학제를 정초하기 위해 필요한 것 역시 장르론임에 틀림없다. 그 장르론을 위해 제일 먼저 시선이 닿은 곳에 다름 아닌 역사가 있었다. 역사를 단순히 장르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순간, 역사라는 테마의 풍부한 접속력은 순식간에 소멸되어버리고 만다. 물론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자들

간의 자족적인 세계 내에서 발화하고 응답하고자 한다면 모를까, 더 넓은 영토 위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발화하기 위해서는 접속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역사 드라마를 장르론 위에 거칠게 해체하는 방식보다 장르 바깥에서 역사 드라마를 사유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과연 불가능한 시도일까. 결코 불가능하지 않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되어 온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

황폐한 게토와 협소한 슬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외침이 필요하다. 아니, 그것은 외침이 아니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는 논증보다는 선언에 가까운 형태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식의 선언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게토 바깥의 수다쟁이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 선언의 수사학은 피아의 구별을 생성해내고, 이는 고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 보편의 언어로 발화될 수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이 책이 그러한 연구의 마중물이 되기를,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한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 책이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장르의 절대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 해방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